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연구

-1980년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류은숙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 한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이나 '방'과 관련된 여성 소설은 많이 나타난다. 특히 80년 이후, 여성작가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집'이나 '방'을 다루는 소설이 많아졌다. 이 점에 주목하여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이나 '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성주의 이론으로 연구해 보았다.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은 작품마다, 작가마다 다른 의미를 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즉 남성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성격의 '집'과 여성성이 부각되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집'으로 나뉜다. 그리고 남성이 중심이 되는 집을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집을 '부재하는 <여성의 집>'으로 이름 붙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작품을 살폈다.

먼저 가부장적 성격을 띠는 집에 속하는 소설들은 남성 중심의 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 이런 가부장적인 집에 대해 여성들은 '집'을 지키거나 '집'에서 떠나려는 것으로 반응한다. 한편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여자들의 모습도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적극적 의미는 가부장제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긍정하며 가족-특히

아들-의 안위를 최선으로 여기고 가문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극적 의미는 가부장제나 가장을 부정하나 별다른 수가 없어 집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유형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는 경우를 그린 소설이 있다. 이 유형의 여자들도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나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버림을 받거나 남성 중심의 가정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성이 중심이 되는 집을 찾아보았으나 대부분 일그러지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부재하는 '여성의 집'으로 제목을 정하고 살펴보았다.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 잉태와 그 생명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여성의 집도 둘로 나뉜다. 첫째는 생명을 잉태하는 집이고 둘째는 어머니와 딸의 집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여성이 남성의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생겨 어머니와 딸의 집을 고부 관계를 다룬 집과 모녀관계를 다룬 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살핀 결과, 아직 우리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대부분이 가부장적인 집이라 할 수 있으며, 간혹 나타나는 '여성의 집'은 부재하거나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소설에 가부장적 집이 많이 나타나고 여성의 공간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인 '집'이 우세한 사회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주요어: 여성소설, 집, 가부장적인 집, 여성의 집, 생명, 어머니와 딸, 정체성, 여성의 공간

1. 서론

90년 이후 두드러진 문학현상 중 하나는 문학과 소설이 위기에 처한 반면 여성소설은 오히려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각종 문학상도 여성작가들이 휩쓸고 있다. 자연 이에 따른 비평도 풍부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비평은 대부분 개별작가나 개별작품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이런 관점도 필요하지만 미시적 시각에 치우쳐 거시적 안목으로 작품을 보지 못한다면 여성문학의 발전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많은 여성소설이 쓰여진 지금, 거시적 안목에서 여성작품을 묶고 나누어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여성소설을 평가할 기준도 생길 것이며, 여성소설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여성소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성소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안다면 해결되는 문제라 생각된다. 최근 여성소설의 공통점의 하나는 '집'에 연관된 소설이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여성작가들이 '집'이나 '방'을 제목으로 하는 소설을 썼으며, 비록 제목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서 거의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성문학에서의 이런 현상은 거대서사 체계가 붕괴되고 일상성이나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온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¹⁾ 일상적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집'이며, 여성들은 대부분 이 사적 영역에 한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과 관련된 작품이 많다. 그러나 여성이 대체로 위치하는 공간이 '집'이라서 그와 관련된 소설이 많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먼저, 여성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자각하면서, 다시 말해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이나 '방'²⁾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왜 나는,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를 자각한 여성들은 왜 자신이 지금의 장소(집)에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선구적 작품이라 할 수

1) 황중연 외,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민음사, 1999), p.46

2) '집'과 '방'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집'은 집단의 최소형태이며, 방은 개인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은 집의 일부이며 우리의 방은 집합적인 면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고, 특히 여성소설에서 '집'이 가족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때는 가정의 의미를 띠어 집단적 의미가 강하고,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여성 자체를 의미하여 개인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되어 '집'과 '방'을 하나로 묶어 다룬다.

3) 김미경, 「We Live Here1 : 여성, 육체성, 공간」, www.fatato.com, 제 1회 사진비평상 당선작.

있는 『인형의 집』(입센), 『나만의 방』(버지니아 울프), 『다락방의 미친 여자』(샌드라 길버트 & 수잔 구버) 모두 ‘집’이나 ‘방’을 제목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대부분 ‘집’을 중립적 공간으로 착각하지만 이것도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이다.⁴⁾ 다시 말해 여성이 가장 많이 머무는 ‘집’ 자체가 문제적 공간이다. 겉으로 보기에 집은 여성의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부장적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며, 여성이 집에 있는 것은 가정적이며 당연한 것 같지만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 몸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 일종의 ‘광장공포증’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이 연구는 여성소설의 출발점이 집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은 다양한 시각에서 살필 수 있다. 먼저 집은 하나의 공간이므로 공간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정의 의미로 살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 집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여성에 대한 시각을 더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생겨난다. 여성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그냥 순응하며 살거나, 탈주하거나, 차이적 공간을 생성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은 대략 둘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런 분류에 이채 소설 역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간에 순응하거나 탈주하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 소설을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으로, 다음으로 차이적 공간을 찾아 헤매지만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부재하는 ‘여성의 집’으로 제목을 붙일 것이다.⁶⁾ 그리고 그 두 가지 집의 위치에서 여성들의

4) 공간은 사회적 산물이며 공간의 이면에는 모호함과 모순, 투쟁의 영역이 숨겨져 있다. 데이비드 하비, 구동희·박영민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한울, 1994), p.244

5) 수잔 보르도, 조애리 옮김,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케티 콘보이 외 엮음,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한울, 2001), p.122.

6) 한 소설에서 여러 문제를 겹쳐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명확히 나눠 지지는 않는다.

욕망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다시 세부적인 분류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

가부장제는 사회·정치·경제적 제도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위주의 체계⁷⁾이다. 따라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이란 간단히 말해 '남성이 중심이 되는 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꼭 자식이 있는 남성이라기보다 남성 전체를 통칭한다. 그렇지만 가부장제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⁸⁾ '남성의 집'이라는 말보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가부장적 아버지의 집'의 문제는 이곳이 여성적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간의 지배권은 남성에게 있음으로 해서 생긴다. 규율은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기 위해 공간에서의 개인의 분할에 착수한다. 규율의 장치는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위치결정의 원칙이나 혹은 분할방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에 따르면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지역마다 할당되는 개인이 있다.⁹⁾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에게 '집'이나 '부엌'의 공간을 할당한다. 그러나 그 공간을 규율화하는 권력은 남성에게 있다.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한 여성의 반응은 두 가지이다. 여성들은 권력이 바라는 유순한 신체가 되어 집에 적응하거나, 반대로 반항하여 집을 떠나려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여

7) 매기 험, 심정순·염경숙 옮김, 『페미니즘 이론 사전』(삼신각, 1995), p.21

8) 이 용어는 베버에 의해 등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확대된 친족 연결망의 여타 성원들을 지배하고 가구의 경제 생산을 통제하는 가구조직의 특별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미셸 바렛 외 지음 신현옥 외 편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여성사, 1995), pp.24~25

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나남출판, 1994), p.215

성들의 모습에 따라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여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성들로 나눠서 살펴보자.

1)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여성들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여자들의 모습도 여러 가지이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적극적 의미는 여성이 가부장제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긍정하며 가족(특히 아들)의 안위를 최선으로 여기고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의미는 여성이 가부장제나 가장을 부정하나 별다른 수가 없이 집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결국 아버지의 집(가부장적 권력)을 유지하게 하므로 ‘지키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적극적 의미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난 박완서의 소설을 살펴보자.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는 제목만 달리했을 뿐, 실상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6.25 직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우리는 이 소설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과 전쟁 중에도 집을 지키려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버지니아 울프가 『3기니』에서 말했듯이 전쟁의 위험이 가득한 상황은 남성들이 벗어날 것이고¹⁰⁾ 전쟁은 집과 여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성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전사회적 공포인 전쟁이 여성의 삶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전쟁 전에는 어머니가, 전쟁 후에는 올케와 ‘나’(완서)가 집을 지켜 낸다. 그래서 이 소설은 집을 지키는 어머니의 이야기와 집을 지키는 딸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박

10)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서울 : 민음사, 2000), p.43

완서 소설에는 '집'이라는 건물 자체에 강하게 집착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¹¹⁾ 이 어머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의 돈을 몰래 써버리기도 하고 좀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힘쓰기도 한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집'에 집착하는가? 처음 친척의 돈을 유용하여 집을 산 것은 '딸(나)'이 주인집 아이와 싸웠기 때문이고 여러 집을 옮겨 다닌 것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즉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딸며느리의 의무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온 엄마는 빈민들이 사는 달동네 현저동에 셋방을 얻어 기생살바느질을 하며 오빠와 완서를 공부시킨다. 엄마는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자식 교육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성을 다한다. 엄마가 자식공부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잘난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일궈주기도 하지만 오빠를 내세워 집안을 일으키려 한다. 왜 엄마는 오빠를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 하는가?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집안을 일으키더라도 남자가 없이는 그 영광이 공적인 영역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부장적 사고 때문에¹²⁾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대는 것이다.

아들의 출세로 엄마는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지만 시대의 변화로 아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해방 전 징용에 끌려갈 위기를 넘기자, 해방 후 다시 빨갱이로 몰려 끌려갈 상황이 생긴다. 엄마는 '가장'인 아들에게 대놓고 좌익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아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이사'만 다닌다. 그러다 오빠는 재혼하고 지체로운 올케 덕으로 생활에 안주한다. 오빠가 취직하여 학교 사택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엄마는 푸성귀나 심으며 박적골 고향같은 집을 만들고 싶어한다.

11) 여기서 다루는 소설 외에도 「엄마의 말뚝」, 「家」도 포함된다.

12) 부계 혈통을 이어갈 남성의 생존을 확실히 하기가 어려워진 때에 여성들은 더 사명감을 갖고 남편과 아들을 감싸왔다고 한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지성사, 1988), pp.92~93

만약 이 일이 잘되었다면 어머니는 자궁가족¹³⁾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의 권력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던 이 어머니의 소박한 소망을 전쟁이라는 더 큰 남성적 횡포는 산산조각 내고 만다. 전쟁 중 오빠의 정신이 혼미해져 돌아오자 평소 어머니의 '잘난', 용의주도하던 모습은 허물어져 버리고 삶에 대한 용기도 않는다.

피난 시절, 엄마에게 한없이 실망하고 오빠에게 육친애와 혐오감으로 몸부림치는 것과 달리, 완서는 올케를 존경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현저동의 여러 집에서 쌀을 훔쳐오는 '보급 투쟁', 사실은 도적질을 하자는 올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다. 더구나 올케는 올케와 완서를 억지로 트럭에 태워 북으로 보내려는 사람을 지혜로 따돌려, 집(가족)을 지킨다. 이제 집을 지키는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머느리인 올케가 이어받은 것이다. 물론 이들은 '남성'이 제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다.

올케는 오빠가 하는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편 오빠가 있고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일깨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밥도 안 굶어 보고 쌀 중한 걸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으로 밥 벌여 본 경험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를 위할 줄 알겠느냐는 소리도 힘 안 들이고 북북 살았다.¹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올케는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해서 취직하게 만든다.

13) 조선시대 여성이 자발적으로 부권사회에 충실했던 이유는 여성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갈 수 있었고, 행실법절을 통해 또는 집안살림을 일구어 놓음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궁가족uterine은 울프M. Wolf가 중국여성의 삶에서 성취적·획득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개한 개념이다. 남편의 집에 편입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젊은 여성은 점차 자신이 낳은 '핏' 줄을 더해감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해 나간다.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머느리가 포함되며 남편은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위의 책, pp.78~79

14)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웅진출판, 1992), p.214

그러나 올케가 하는 일은 ‘가장으로서 의무’를 오빠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자 자신의 힘으로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은 남성에게 가장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남성이 그 의무를 하지 못할 때 비로소 자신이 나서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완서도 마찬가지이다. 박적골에서는 귀염받는 손녀딸, 현저동 어머니 아래에서는 사고뭉치 딸이었지만 오빠가 죽고 전쟁이 끝나자 이제 완서가 ‘집’을 지킨다. 사람 구실은 못해도 집의 가장이던 오빠가 죽자 온 식구는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갈 힘을 잃는다. 그러다 조카가 아플 때 돈이 없어 고생한 충격으로 완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피엑스에 취직한다. 엉터리 영어로 양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그곳의 생활은 고통이었지만, 결국 화자는 조카의 버짐 핀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오르게 하고, 올케가 동대문에 가게를 얻게 만들고, 엄마가 하숙칠 집을 살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도 그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이란 어떤 운명인지 알고 있으므로 완서가 결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완서는 결혼을 택하고 엄마에게 “딸자식은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이거늘” 하는 한탄을 듣는다.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때 어머니와 딸은 의연한 척하지만 서로 몰래 통곡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쏟는다. 이 눈물은 어려운 삶을 함께 살아온 모녀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¹⁵⁾ 물론 화자는 어느 가문에도 속하지 않을테니 두고 보라고 맘속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 다른 가부장의 그늘로 편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집에서 완서에게 중요한 남자들은 전부 죽어버린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죽고, 다음은 할아버지가 그 다음은 오빠가. 그래서 그녀와 어머니, 그녀

15) 이리가라이는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분리가 어렵다고 한다. 레나 린트호프, 이란표 옮김, 『페미니즘 문학이론』(인간사랑, 1998), p.246.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딸이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되어 어머니와 사실상 한 번 더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와 올케의 관계는 아주 각별하다. 가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다. 이 소설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남성의 모습과는 달리,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여성의 모습을 서술했다. 이 소설은 ‘어머니와 딸의 서사’가 소설 내용의 중심이며, 구령재 마님, 올케 등 건강한 여성의 이야기가 넘친다. 그렇지만 이 여성의 유쾌한 이야기가 진정한 여성의 서사가 되지 못하고 결국 한 가족이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기 위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 소설 대부분이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면서 여성의 집에 분류될 수 없는 것도, 이 어머니와 딸이 결국 가부장적인 집을 완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완서 소설은 사건 중심이라 잘 읽히고, 오정희 등이 즐겨 쓰는 여성적 글쓰기 작품과 거리가 있다. 이런 글쓰기 방식이 박완서 소설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이 박완서 소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가 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난 소설이 있다. 이들은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하기도 하고 ‘집’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기도 하지만 집을 등에 지고 사는 달팽이처럼 좁처럼 떠나지 못한다.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부장적 권력에 길들여져 이미 순종적인 신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에게 가정에 있을 것을 강요하며, 이에 순응한 여성은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점점 줄여 침실, 부엌, 성, 아이, 가정에만 머무는 광장공포증 환자가 되고 만다.¹⁶⁾ 이렇게 여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체념에 의한 것일지라도, 가부장적 권력을 지키는 것에 공모하는 것이다.

주부가 주인공인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끊임없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꿔나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임선의 『바람집』에서 여주인공은 ‘바람집’(폰섹스사업장의 이름)이라는 가부장적 권력의

16) 수잔 보르도, 조애리 유킴, 『몸의 여성성과 재생산』, 앞의 글, p.122

파놉티콘에 갇혀 살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신음하다 결국 죽고 만다. 이들은 삶의 힘겨움을 이기기 위해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오정희, 「어둠의 집」), 사람이 꼭 행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기도 하며(김채원의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를 포기해 버리고(한정희의 「우리집」), 아이를 생각하며(김채원, 「물 위에 어린 그림자」)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한 한 소설들은 가부장제의 여러 문제를 잘 언급하고 있지만 문제제기에서 끝나 버려 아쉽다. 한편 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비록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이해경의 『길 위의 집』에서는 아들들은 길 위에 흩어져 버리고, 집을 지키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전경린의 「바닷가의 마지막 집」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자신과 떠나자는 애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절망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며 집에 남는 것을 선택하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사회운동이라는 남성적 방법 대신 절망 속에서 삶의 괴로움을 이기려는 여성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로 생각된다.

2)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성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자들 이야기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여자 이야기’와 ‘집을 제발로 나오는 여자 이야기’가 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확고했던 옛날에, 집을 제발로 나오는 여자 이야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지만, 집에서 쫓겨난 여자 이야기는 많이 전해져 온다. 다른 남자와 염문을 일으켰다고 쫓겨난 선화공주 이야기나, 딸로 태어났다고 버림받은 바리공주의 이야기 외에도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거나 남편의 학대, 도사의 지시 등 타의에 의해 ‘쫓겨난 여인의 이야기’가 전국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¹⁷⁾ 이들은 모두 가부장의 노여움을 사 쫓겨나지만, 오히려 쫓겨난 뒤 큰 행운을 얻는다. 물론 아무리 설화일지라도 시대상황이 여자가 자신의 집을

17) 崔雲植, 『韓國說話研究』(集文堂, 1991), pp.352~371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므로, 새로운 가부장의 집을 만들거나 가부장의 인정을 받아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끝맺는다.

꿈을 그린 이런 설화와 달리 현실을 그린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이 계열의 소설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남성에 의해 버림받는 여자를 그린 것이고 둘째는 남성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여자들을 그린 것이다. 먼저 버림받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소설에는 젊어서는 남편이 잘되는 것에, 늙어서는 아들이 잘되는 것에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결국 믿었던 아들에게 버림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박완서의 「家」, 그리고 걸으로 옆집 여자에 의해 한 여성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그리면서 그 이면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숨어있음을 그린 하성란의 「옆집 여자」도 생각해 볼만한 작품이다. 이 두 소설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삶을 철저히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마는 것을 그림으로써 '아버지의 집'에서 신음하면서도 그 집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진정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제 남성 중심의 집을 못 견뎌서 나가는 여자들을 그린 소설을 살펴보자. 여기에 속하는 소설의 여성은 가부장적인 집을 나온 후, 자신의 집을 찾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소설이 여성이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왜' 집을 나가려는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전경린의 「염소를 모는 여자」(1995)를 살펴보자. 여기에 나오는 '나', 윤미소는 서른 셋의 나이이다. 이 때는 "비행을 꿈꾸던 깃털은 오래 쓴 빗자루처럼 망가지고 우리의 눈빛도 낡은 오버의 단추처럼 손상되는" 꿈꾸기엔 너무 늦은 나이이다. 감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싶은 것이 꿈인 남편이 밤늦도록 비디오나 보며 어린 사무원과 바람이나 피우는 것에 혐오와 권태를 느끼는 미소는 스스로의 삶 역시 지겨워한다.

미소의 친구들인 삼십대 여성들은 불행을 감추고 웃음을 파는 여자들처럼 '싱크대 위엔 물기 한 방울 없이 물잔 한 개 나와 있는 것 없'이 해 두면서 유곽같은 아파트에서 마냥 시간을 흘려 보내며 슬픔을 삭인다. 미소는

처음 '주부였던 여자는 잡혀온 포로'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들은 '막다른 길이거나 길이 끊어진 벼랑에' 있으면서 시간을 죽이는 게임이나 하는 이 반복에 누가 '마침표'를 찍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미소에게 마침표를 찍을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죽은 새어머니 영혼의 성소인 염소를 맡아 달라는 것이다. 황당해하던 미소는 그 사람의 끈질긴 부탁으로 염소를 맡게 된다.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염소를 키우며 미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먼저 미소는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이 '아파트'인 집은 미소에게 부적당한 건물이며, 맞지 않는 가정이다. 그런데도 미소는 강가에 미루나무가 있는 마당 있는 집을 꿈꾸면서도 선뜻 집을 찾는 것은 주저하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고 난 뒤 "명백하게 캐내지도 못했고 용서하지도 못"한다. 남편의 외도를 안 날, 어떤 여자가 남편의 외도로 아이 둘을 아파트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자신도 죽은 사실을 떠올린다. 미소가 두려워한 것은 이런 것이다. 여자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므로 집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할 바에야 죽어버리는 것을 택한 것이다. 미소가 이 이야기를 상기하는 것은 어느새 자신도 집 나오기를 두려워하여 발이 굳어버린 광장공포증 환자가 된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소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딸이며, 미치광이 취급 받는 청년이다. 딸은 미소에게 집에 '고래가 바다를 찾아 떠났듯이' 숲을 찾아 떠나라는 지혜를 일깨워 준다. 미치광이 청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며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정신 분열증의 인간이다.¹⁸⁾ 즉 고래는 육지에 적응할 수 없고, 염소는 아파트에 적응할 수 없고, 청년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으며, 미소는 남성의 집에 적응할 수 없다.

나의 손가락들, 나의 무릎, 나의 등, 나의 귀, 나의 가슴, 나의 겨드랑이…… 그 것이 왜 남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토

18) 정신분열증과 욕망에 대해서는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최명관 옮김, 『양피오 이디푸스』(민음사, 1997), p.473.

록 오랫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것이 아니던가.¹⁹⁾

이것은 미치광이 취급받는 청년이 미소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그녀가 느낀 감정이다. 이제 미소는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남편의 시선만으로 의미 있는 몸이 될 수 있었던 미소는 이제 거울 속 모습을 만지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식인데 여성의 몸은 단단한 영토의 경계선을 위반하고 탈주하는 분자의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미소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만 규정되던 몸의 권리를 이제 되찾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다. 여자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어머니, 처녀, 창녀로 규정되면서²¹⁾, 정체성의 문제는 그동안 남성의 문제로 생각되어 왔다. 여성은 남성에 의해 혹은 남성의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²²⁾ 여성은 공적 생활 속에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체성을 가진다.²³⁾ 미소가 과외는 하는 것은 주부로만 규정되어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 거부 의 몸짓이다. 이 과외를 구하는 광고로 미소는 결국 염소를 밀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집혀온 포로였던 주부”도 가족에 의해서만이 아닌 그 인간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미소는 깨닫게 된다. 벼랑 끝에서 심연을 내려다보며 세월이 어서 가기만 바라던 ‘미소’는 주부로서의 정체성만이 강요되는 ‘훼손된 집’을 나와 자신의 숲을 찾아 떠난다. 여기서 ‘숲’은 꿈을 펼칠 수 있는 환상적 공간일 것이다.

19) 전경린, 「염소를 모는 여자」, 「염소를 모는 여자」(문학동네, 1996), pp. 57~58

20) 엘리자베스 그로즈, 임옥희 옮김, 「피비우스 피로서 몸」(민음사, 1997), p.345

21)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동문선, 2000), p.242

22) 정혜윤, 「뤼스 이리가라이의 ‘여성성’ 이론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79

23) 뤼스 이리가라이, 박정오 옮김, 「나, 너, 우리」(동문선, 1996), p.83

신이현의 『숨어있기 좋은 방』은 20대 여성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를 그리고 있다. 방탕한 아버지로 인한 가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이금’은 그 탈출구로 결혼을 선택한다. 그러나 결혼생활도 자신의 굴레라는 것을 알고, 결국 집을 나와 ‘숨어있기 좋은 방’에서 서른 살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 공간은 여성적 공간도 아니며, 잠깐의 도피처에 불과하다.

3. 부재하는 ‘여성의 집’

부재하는 여성의 집이란 무엇인가? 먼저 여성의 집이란 여성성이 드러나는 공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표면적 의미 그대로 여성의 본성 더 넓게 말해 여성의 여러 특성을 뜻한다. 한때 이런 여성적 특성이 남성 주체들에 의해 강요된 모델과 법칙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된 적도 있었다.²⁴⁾ 그러나 모든 조건에서 남성과 똑같으며, 무조건 중성적 입장에서 여성을 설명하는 태도는 차이의 원리가 아닌 남근 중심의 동일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여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설명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요즘은 오히려 여성성의 왜곡된 형태를 회복하고 긍정적 가치를 지닌 진정한 여성성을 발굴하여 기존의 언어질서를 적극적으로 교란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²⁵⁾ 본질적으로 여성성은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억압의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억압, 왜곡,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성을 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여성은 남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공간은 언제나 여성을 제한하거나 여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24)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앞의 책, p.113

25) 정혜운, 「뤼스 이리가라이의 ‘여성성’ 이론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p.7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남성들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여성과 모성의 공간을 지워버려 여성을 위한 공간을 빼앗고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진정으로 머물 공간이 없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로츠는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머무는 것은 집 없이 떠도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 여성을 제한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새로운 공간의 점유와 거주,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몸, 몸의 새로운 존재방식”을 제안하는 일이 필요하다.²⁶⁾ 즉 이제 여성성이 드러나는 공간, 여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여성의 육체와 관련된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그 생명을 기르는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을 논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 여성성의 두 특성에 따라 여성의 집도 첫째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으로 나타난 작품이 있을 수 있겠고 둘째 생명을 길러 내는 모성의 공간으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나타난 공간이 드러난 작품이 있을 수 있겠다. 이 공간에서 남성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물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때도 있으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의 인물들처럼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여성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쨌든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아직도 분만과 양육의 지배권은 남성에게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은 왜곡되어 나타나며 여성의 집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공간은 보통 부채하는 것이나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경제적 위기로 처진 남성의 어깨를 세워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가부장의 권위에서 완전히 해방된 여성의 소설의 탄생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집’의 모습이 아예 나타나지

26) 김미경, 「We Live Here1」: 여성, 육체성, 공간, 앞의 글

않기보다 ‘여성의 집’ 탄생의 싹이 보이는, 혹은 진정한 여성의 집을 추구하는 소설을 다룬다. 이런 소설이 계속 쓰인다면 진정한 ‘차이적 공간’ 이 나타난 소설도 곧 쓰여지리라 생각된다.

1) 생명이 잉태되는 집

여성의 몸은 병이나 거부 반응, 생체 조직의 죽음을 유발시키지 않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자라도록 관용하는 특수성을 지닌다고 한다.²⁷⁾ 이런 ‘생명의 잉태’는 여성의 으뜸가는 특징이며 신비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신은 여성을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는 등 많은 불리함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학자들은 임신을 여성 육체의 부정적 특성으로 보아 왔다. 엥겔스는 여성의 임신이 남성의 경제적 노동과 부의 축적을 부추겼고 그것이 가부장제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²⁸⁾ 프로이트는 남근에 대한 선망 때문에 여성이 페니스의 대체물인 아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파이어스톤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임신과 출산 같은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대해 극단적 혐오감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다른 두 성을 동일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남성중심적 사고나 다름없다. 카렌 호니는 여성의 생산능력에 대한 남성의 선망이 더욱 중요한 선망일 것이라고 말하며²⁹⁾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생명을 잉태함을 들어 여성의 생태적 우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에서 생명잉태를 보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남근의 대체물로 여성이 아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육체나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생명을 잉태함을 생태적 우위에 두는 것은 그것을 잉태하는 육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27)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앞의 책, p.47

28)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앞의 책, p.269

29) 정혜윤, 「뤼스 이리가라이의 ‘여성성’ 이론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p.31.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킨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비판하기로 한다.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원제 : 불입파리, 1997)는 자세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자들은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아내의 상자」에 서술된 것은 환경에 도태되는 인간(아내)과 환경에 잘 적응해 가는 인간(남편)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성의 문제, 공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내의 상자」에 나오는 집은 신도시의 아파트이다. 이곳은 간장의 물기를 빨아들여 조금만 남게 하고, 사과와 수분도 다 빨아들여 쪼글쪼글하게 만든다. 아내는 자기 몸의 수분도 시멘트벽이 다 빨아들인다고 믿는다. 이 '신도시'의 아파트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빨아들이는 황폐한 공간이다. 또 이 신도시는 별판에 갑자기 건물이 생겨난 곳이며, "길이 다 끊어져 버린", 찾길만 있고 길을 만든 '길'은 없는 곳이다. 길도 없는 곳에 세워진, 물을 빨아들이는 신도시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근대사회의 상징이다. 이 공간은 권력에 적응한 합리적이고 유순한 신체를 원한다.

먼저 남편을 살펴보자. 이 소설에서 남편이 남자라고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것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때는 없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미안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슈크림을 사오기도 한다.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아내를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남편은 앞 절의 가부장적인 남성일 수가 없다. 어찌 보면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남편은 성욕도 아내의 배란일에 따라 생기는 즉 자신의 욕구도 환경에 적응하여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다. 남편은 '길'도 없는 신도시의 삶에 잘 적응하는 합리적 인물로 그들이 사는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아내는 근대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체'³⁰⁾가 되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공간에 적응하지 못

30) 근대적 삶이 이뤄지는 공간은 사적 삶의 장인 집, 생산의 장인 공장 그리고 교육의 장인 학교이다. 이것을 거쳐 근대가 요구하는 주체가 된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소명출판, 2000) pp.9~10.

한 인물이다. 그녀는 '유순한 몸'³¹⁾이 되지 못했다. 겨울 내내 연탄가스를 마시면서 태생 연습을 하고도 미술 대학 즉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험날 그녀는 어머니가 짜 준 한 방향만 보도록 고안된 스웨터에 몸을 적응시키지 못하고 숨막혀 한다. 움직임이 제한되는 시험장의 공간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잡그기 위해 계속 움직여 버림으로 그녀는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³²⁾ 다음으로 '병원'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 장사하는 불임병원에 신체를 적응시키지 못한다.³³⁾ 무엇보다 그녀는 갑자기 거대한 아파트가 솟아오른 신도시라는 자본의 권력에 의해 생긴 공간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사적 공간인 자신의 '방'도 잃게 된다.

아내는 신도시로 오면서 자기 방이 생기는 것을 좋아했다. 일찍이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듯 여성이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갖기란 쉽지 않으며 여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적다.³⁴⁾ 자궁이 제 기능을 못하는 여자에게 자궁의 상징인 방이 더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색 신도시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벽을 가진 아파트 속에 있는 '방'은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거세된 아

31) 군대, 학교, 병원, 감옥, 공장의 목표는 몸의 효용성을 증가시켜 유순한 몸을 생산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앞의 책, pp. 289~329.

32) 푸코의 말에 따르면 “시험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차별할 수 있는 감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있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시험에는 권력의 의식과 실험의 형식, 힘의 과시와 진실의 확립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살핀다면 시험에 실패하는 아내의 성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책, p.276.

33) 불임치료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리가라이 같은 이는 “매춘은 여성의 성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것이며 인공수정은 모친의 자궁을 빌려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뤼스 이리가라이, 『나, 너, 우리』, 앞의 책, p.136.

34) 독일의 사진가가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여자들은 스스로를 작고 좁게, 즉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혹은 남자의 공간에 숨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줄인다고 한다. 수잔 보르도 외,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앞의 책, p.214, p.122.

내의 자궁과 다름없는 곳이다. 이런 공간에서 무기력해진 아내는 책을 읽거나 무덤처럼 편안한 의자에서 낮잠을 잘 뿐이다. 아내는 ‘잠’ 자는 것을 아주 즐긴다. 화가 났을 때도, 심지어 외도를 할 때도 잠에 푹 빠진다. ‘무덤’이라는 말이나 “자신을 상처 입힌 세상을 향해 빗장을 지르고 잠들어 버린 그때의 모습”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내에게 잠을 잔다는 것은 잠시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말소’이다. 아내는 공벌레처럼 웅크리고 잔다. 자신의 방을 가지고도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버리며 죽음과 같은 잠을 자는 것이다. 아내는 점점 자신을 파괴시켜 자신의 방도 잃게 된다.

이 소설은 남편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성격의 인물과 그들에게 적절한 산업사회의 거대한 신도시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이에 비해 자연에 더 가까운 인물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는 이런 곳에서 거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내가 이 도시에서 불임으로 굳어져 버리듯, 거대한 산업사회는 많은 자연을 거세시켰다. 길이 모두 끊어진 거대한 신도시에 들어선 주거공간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빨아들인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복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합리적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기세’이다. 이내는 “생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것에 의해 변모되지 않는 자는 가정의 안락도 법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귀기울일 만한 가치도 없다. 이 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는 점점 지워져 버린다.³⁵⁾ 유순한 신체가 되지 못한 아내는 마지막에 ‘병원’이라는 곳으로 간다. 이 병원은 당연히 정신 병원일 것이다. 이 소설은 아내가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림으로써 아내를 불임증으로 거세시킨 남성 중심적 합리주의 사회의 피폐함을 비판하고 있다.

생명이 잉태되는 집에 속하는 소설들은, 여자에게 아이를 낳는 일이 더

35)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歷史』(나남출판, 1990), p.24.

없이 소중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 가령, 신경숙의 「별판 위의 빈집」에서는 완전한 집의 완성이 생명을 낳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건강한 자궁밖에 없는 여자는 전경린의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에서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하려 한다. 물론 이 방법이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상대 여성(문계장)에게는 효과가 있다. 필자의 게으름 탓인지 이에 속하는 소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어쨌든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어머니와 딸의 집

어머니와 딸의 집은 모녀 관계가 나타난 집을 말한다. 모녀 관계는 원래 어머니와 딸의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으로 되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또 다른 모녀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모녀 관계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성소설에서는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추하거나 탐욕스러우며 딸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이것은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성이며 '여신'이 아님을 뜻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물론 어머니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여성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어머니를 이상화하여, 어머니는 늘 희생해야 하며 어머니가 있어야 할 곳을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삶을 남성의 통제하에 두려는 사회적 장치이며, 여성의 삶을 억압한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는 유아기적 환상³⁶⁾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이 환상을 견어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평화와 희생의 복합체가 아니라 광기와 갈등, 분열에 휩싸여 있는 모습"³⁷⁾으로 나타난다는

36) 낸시 쇼도로우·수잔 콘드라토,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 배리 쏘온 외, 권오주외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아카데미, 1991), p.91.

것이다. 이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법에 의해 무화된 그녀의 욕망, 쾌락, 주이상스, 정념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³⁷⁾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여성소설에는 어머니가 이상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다룬 소설은 여성소설에서만 볼 수 있다. 남성작가의 소설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다룬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남성작가들은 대부분 부재하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을 다룬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사실은 부재하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성소설에서는 고부관계를 다룬 소설이 종종 등장한다. 그만큼 여성에게는 시가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남성에게는 처가와와의 관계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모녀관계에 대해 다룬 소설을 가부장적인 집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성이 남성의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는 소설은 가부장의 폭력성이나 횡포를 다루기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즉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다루며 더구나 그 결말이 여성으로서의 이해, 즉 자매애적, 수평적 관계에서의 이해에 대해 다루므로 ‘여성의 집’에 속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그린 소설이 단순히 여성이 사건의 중심이라서 ‘여성의 집’에서 다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먼저 모녀 관계가 소설화된 것, 이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식수나 이리가라이 등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머니와 딸의 서사의 중요성을 말한다. 가부장의 힘은 한 족보를 다른 족보에 종속시킴으로써 형성되었으며 부계혈통을 따르는 사회에서 모녀관계는 남자들간의 관계에 종속된다.³⁸⁾ 오이디푸스 이야

37) 김수진,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모성의 담론과 현실』(나남출판, 1999), p. 296.

38) 뤼스 이리가래, 권현정 엮음,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공감, 1997), p. 269

39) 뤼스 이리가라이, 박정오 옮김, 『나, 너, 우리』, 앞의 책, p. 17

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서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다.⁴⁰⁾ 간혹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어머니도 아버지를 대신하거나 아버지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위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도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루는 신화나 전설은 드물다. 이제 모녀관계가 서사의 한 축을 이룬다는 것은 이전 서사와는 다른 점이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소설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먼저 딸과 어머니의 불화나 화해의 과정을 담은 소설이 있을 수 있겠고, 다음으로 여자가 결혼하여 새로 모시게 된 어머니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 하나 있을 수 있겠다.

먼저 모녀관계를 담은 작품인 은희경의 「내가 살았던 집」(2000)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모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발표 당시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미혼모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나 미혼모의 결혼 문제에 이야기의 중심이 있지 않고 미혼모가 이룬 가족—즉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딸만 있는—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점과 둘째, 전통적으로 그려온 희생과 인고의 상징이 아닌 성적 욕망을 가진 인물로 어머니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소설에는 두 가지 이야기의 축이 있다. 하나는 어머니의 애인인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즉 어머니의 사랑이야기와 다른 하나는 딸과 그녀의 이야기, 즉 가족간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사랑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이지만 여주인공인 어머니는 ‘그’가 유부남이 된 후에도 그를 계속 만나고 싶어

40)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바탕으로 이혼을 전개시켜 남성중심 편견과 여성을 비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영미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앞의 책, pp.130~131

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그를 만나 정사를 나눈다. 여주인공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여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 하면 무성이나 중성을 떠올리는 사회통념에 달리 그녀 역시 성적 욕망을 가진 여성임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근대 사회는 성적 욕망을 부부-가능한 한 합법적인, 이성애의 부부- 사이에 한정”⁴¹⁾시켰는데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혼인장치에 편입되지 않고, 성적 욕망을 누리려는 여자이다.

다른 소설이었다면 미혼모의 불완전한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 분명 그녀의 애인인 ‘그’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족이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이기 때문이다.⁴²⁾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이 미혼모가 주인공이면 미혼모로서 세파를 헤쳐나가는 어려움, 즉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거나 결혼하여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을 담는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 그녀가 미혼모로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으며, 원망도 없으며, 어떻게 애를 가지게 되었는지조차 없다. 단지 주인공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이 점이 이전까지의 소설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과 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온다. 주인공의 남자가 죽던 날 딸은 첫 생리를 시작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생리를 남자와 자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그녀는 딸의 첫 생리를 출산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햄스터가 새끼를 낳는다. 딸이 새끼가 보고 싶어서 철망집을 덮은 신문지를 자꾸 들춰보자 햄스터는 자기 새끼를 먹어 버린다. 이 문제로 사춘기에 접어든 딸

41) 미셸 푸코, 『性の歴史』, p.63.

42)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합법적이고 생식력 있는 규범적 부부”에서 거리가 멀다. 더구나 모성의 자격증은 정해진 가족과 결혼의 틀 안에서만 주어진다.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모성의 담론과 현실』, 앞의 책, p.46.

과 다투게 된다. 그녀는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주는 게” 동물적인 모성이라고 말하고, 딸은 “아무리 어미라고 해도 죽고 사는 문제를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불공평한 거”라고 말한다. 미혼모인 그녀는 어미의 입장을, 딸은 새끼의 입장을 말한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새끼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사춘기의 딸은 엄마가 자신에게만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딸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모성 이데올로기대로 엄마라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삶만 있을 수 있지, 자신의 인생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문제로 결국 딸은 가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다. 그녀는 그의 아기를 임신 중이었으나, 햄스터가 새끼를 먹은 것처럼, 유산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아이를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나, 그녀를 위해서 더 낫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 어머니 될 권리를 선택했던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한 것이다.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딸과 여자이고 싶은 어머니의 갈등은 아이가 유산되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일단락 된다. 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뒤, 샤워를 하면서 그녀는 “젓꼭지가 차가워진” 것을 안다. 젓꼭지가 차가워지면 여자로서 생명은 끝난다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그와의 사랑을 끝으로 “자신의 삶을 속박해온 육신의 주기도 어지간히 일주를 마쳤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제목인 ‘내가 살았던 집’은 어머니로서만이 아닌 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집으로 말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발표 당시 은희경의 다른 작품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미혼모와 딸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그들의 갈등에 대해 다룬 점은 이전의 소설과 확연히 다르다. 애 딸린 여자라도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그린 점 역시 여성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리고 과거 그녀가 어머니 될 권리를 선택한 것과 지금 어머니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선

택권을 여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결말이 가부장적 모성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자아실현이 불가능했던 시대를 산 어머니들은 딸에게 그 욕망을 투사시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이것은 딸이 자율적 인간이 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김향숙은 「종이로 만든 집」을 통해 그리고 있다. 신경숙의 「별관 위의 빈집」은 동화나 설화에서 많이 나타나있는 「딸을 죽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이처럼 여성소설에는 대체로 부정적 모녀관계를 다룬다. 물론 전경린의 「안마당이 있는 가갯집 풍경」같이 딸이 어머니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모녀관계를 다룬 작품도 있지만 그 수는 적다.

이제 또 다른 모녀관계(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그린 작품을 살펴보자. 이들 작품은 딸(며느리)이 어머니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 긍정적 모녀관계를 그린다. 이혜경의 「그 집 앞」에서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며느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큰댁과 작은댁이면서도 사이 좋게 사셨던 자신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극복하려한다. 한편 중년이 된 주부의 무력감을 극복하는 지혜를 또 하나의 집인 시어머니에게서 구하려는 김향숙 「또 하나의 집」같은 작품도 있다. 두 작품 모두 가부장적 모순으로 생긴 문제점을 여성이 침고 살기로 결심하여 수동적 해결이라 볼 수 있지만, 여성과 여성의 이해 즉, 수평적 이해에서 비롯된 수직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4. 결론

여성 하위주체가 무슨 경험을 하건 그것은 담론의 장에 들어오기 어렵고, 그들의 말로 표현할 기회조차 부족하고, 표현한들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제야 우리 여성의 말은 담론의 장으로 들어왔다. 그러

나 그 목소리는 여전히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다.⁴³⁾ 따라서 담론의 장으로 들어온 여성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먼저 여성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뒤에야 옥석을 가릴 수 있으며, 이런 작업이 선행된 후에 여성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문학에 나타난 공통된 관심사와 그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집에 대한 관심이라고 규정짓고 그 '집'이 여러 유형이며 그에 속하는 여성들의 삶도 다양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먼저 여성소설에 표현된 '집'의 성격에 따라 가부장 중심이 되는 집과 여성성을 소망하는 집, 정체성 문제가 중심이 되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과 관련된 여성소설을 살핀 결과 대부분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설이 많았고 여성성과 관련된 소설은 아직 많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진정한 여성의 서사가 부족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이 개선되면 자연 여성의 서사도 풍부해지리라 생각되지만 여성의 서사가 풍부해짐으로써 현실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는 구바와 길버트가 말한 여성작가의 저자성 공포⁴⁴⁾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최근 여성작가들이 페미니즘 소설가로 불리기 거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페미니즘을 한다면 문학적이지 못한, 붉은 피를 두른 혁명가를 떠올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그래서 여성이 자전적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 사소설이니 문학의 후퇴니 하는 걱정하는 평자들도 있다. 이런 소설이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과는 대조적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괴테와 쉴러가 걱정했던 딜레탕티즘 현상을 연상시킨다. 괴테와 쉴러는 자율미학을 관철시키고 국민문학을 주창시키고자 잡지를 출간하려 했는데, 그것이

43)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p.117

44) 레나 린트호프, 이란표 역, 『페미니즘 문학이론』(한신문화사), p.95

실패로 돌아가자 딜레탕티즘 정신의 급속한 유포에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 괴테와 실러는 딜레탕티즘 현상을 문학의 삶 속에서 점차 증대되는 여성들의 출현과 관련시켰으며, 여성작품으로 그것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여성 문학은 예술과 삶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술의 자율성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여성문학을 수준 높은 예술에서 배제하면서 통속 문학으로 분류된 문학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었다.⁴⁵⁾ 괴테와 실러의 이런 생각이 시대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우리 여성문학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성 비평의 관점에서 새로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여성의 경험 이 소설화된 것을 비판하려 할 때 아버지의 상징계에 갇혀 '하나이지 않은 성'⁴⁶⁾의 문학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성중심의 집을 전복하여 여성중심의 집이 나타난 여성소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 성이 중심이 되는 집은 필연적으로 다른 성에게 억압을 가져오기 마련이며, 언젠가지 힘이 더 센 성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두 성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드러난 소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여성주의 문학이론으로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 이 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했으나, 지나치게 자료연구에 치우친 한계를 드러낸다. 앞으로 일관된 안목과 기준으로 여성문학과 집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한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필자 : 교원대 대학원 졸업

45) 딜레탕티즘과 여성문학의 관계는 위의 책, pp.106~108.

46)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앞의 책, p.35.

Abs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Home' in the Feminine Novel
- On the Basis of the Novel after 1980 -

Ryu, E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it clear the meaning of 'home' in the feminine novel after 1980. Lots of feminine novels associated with 'home' or 'room' appeared because most of feminines lived limited to the private area. Especially after 1980, according as the number of feminine writer increased, we could find many novel dealt with 'home' or 'room' naturally. In this study, I have studied the meaning of 'home' or 'room' in the feminine novel on the theory of feminism.

I readjusted the meaning of 'home' in the feminine novels to be implied two meanings though it has different meanings in the each work and writer. They could b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home'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patriarchy centered on the man. Second, 'home' in which feminine had an important role based on femininity. I named the first one 'patriarchic father's home', the second one 'absent <feminine's home>' and then looked upon the works on this criteria.

First, novels about the patriarchic home dealt with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man-centered home. Feminines reacted to these kinds of home in different ways as keeping 'home' or leaving 'home'. And I looked upon the feminines keeping their patriarchic home on the basis of both active and passive meaning. Active meaning showed that

people were positive toward patriarchy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onsidered the safety of their family – especially, children’s – most crucial, and tried to succeed to their own family. Passive meaning denied the patriarchy but stayed at home cause there were no way to do for something else. Next, Some kinds of novels dealt with the situation that feminines who had depressed from patriarchy left their fathers’ home. These kinds of women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part as they devoted themselves for their family but in the end were given away from men in one way or left home not to endure the man-centered home.

Second, I tried to look upon the femininity-centered home and found that most of these were to be distorted or strained. So I made the title absent ‘feminines’ home. Feminine’s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was to bear a life and grow it. Depended on this, feminine’ home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parts. One was the home to bear life and the other was mother and daughter’s home. Especially, due to the custom that woman came to belong to man’s family by a marriage in Korea made another mother and daughter for feminines, I explained mother and daughter’s home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daughter as well a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s a result of looking upon two ways like this, most of ‘home’ in the feminine novel was likely to be the patriarchic home, ‘feminine’s home’ appeared to be absent or distorted. Like this, from the view that many of patriarchic home have been appeared, the space of feminine has been distorted and searching for identity have come to fail, I would conclude that the patriarchic home have yet been superior in our society.